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화 궤적과 영유아의 기질 및 내재화 문제의 구조관계: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다집단분석*

박새롬¹⁾ 노보람²⁾ 박혜준³⁾ 이순형⁴⁾

요약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화 궤적을 종단 자료를 통하여 살펴보고, 양육스트레스 변화 궤적, 1차 연도에 측정된 자녀의 기질(정서성, 활동성), 5차 연도에 측정된 자녀의 내재화 문제가 어떠한 구조적 관계가 있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8~2012년에 걸쳐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한국아동패널 조사의 1~5차 연도 종단 데이터를 활용하여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ing) 및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화 궤적은 자녀의 성장에 따라 증가하되 증가율은 점차 감소하는 이차함수 모형으로 나타났으며, 양육스트레스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개인차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자녀의 정서성 및 활동성 기질은 양육스트레스 변화 궤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양육스트레스 변화 궤적은 1차 연도 자녀의 정서성 기질이 5차 연도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매개하였으며, 1차 연도 자녀의 활동성 기질이 5차 연도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매개하였다. 넷째,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다집단분석 결과, 변인 간 영향력을 미치는 경로는 모두 동일하였으나 비취업모의 경우 취업모에 비해 양육스트레스의 초기치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본 연구의 의의와 후속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잠재성장모형, 양육스트레스 변화 궤적, 기질, 내재화 문제, 다집단분석

* 본 논문은 제5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발표논문을 수정·보완하였음(대학원생 논문공모 당선).

1)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2)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3)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및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겸무연구원

4)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및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겸무연구원

I. 서론

생애 초기 영아가 정서 상태에 민감한 어머니와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것은 안정애착, 자기조절, 신뢰감 형성 등 영아의 건강한 정서행동발달의 기초가 된다(Music, 2011). 태어나 처음으로 맺게 되는 어머니와의 관계는 이후 성장과정에서 경험하는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생애 초기의 발달에서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모-자녀 상호작용은 양방향적인 특성을 가지므로(Kuczynski & Parkin, 2006) 어머니와 자녀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어머니의 민감한 양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적 요인으로 양육스트레스를 들 수 있다. 양육스트레스(parenting stress)란 부모역할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의 한 유형으로,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부모가 인지하는 곤란함 또는 부담감을 의미한다(Coplan, Bowker, & Cooper, 2003).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는 영아의 신체적·정서적 요구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며(김현희·박천만·이종렬 외, 2009; 신지연, 2011; Abidin, 1992), 이는 영아에게 더욱 까다롭고 예민한 반응을 이끌어내어(정미라·강수경·최은지, 2014) 양육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영유아기 자녀의 사회정서발달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양육스트레스는 부적절한 상호작용 및 양육행동을 통해 자녀의 발달 및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Abidin, 1990; Dreater-Deckard, 1998), 양육행동이라는 매개변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유아기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Anthony et al., 2005). 어머니의 높은 양육스트레스 수준은 유아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보이는 사회성 및 내재화·외현화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Anthony et al., 2005), 특히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불안정 애착이나 문제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rnic & Low, 2002; Cummings, Davies, & Campbell, 2000).

부모-자녀 관계가 다른 대인 관계와 가장 구별되는 점은 일생 동안 지속되는 상호의존적인 관계이며, 서로에게 지속적이고 누적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De Mol & Buysse, 2008). 따라서 출산 초기부터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양육스트레스가 어떤 변화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으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의 발달 간의 관계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 지금까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하여 이루어진 연구들은 대부분 특정 시점에서의 양육스트레스 수준과 자녀의 적응 간의 관계를 밝히고 있는 바(김숙령·최향준·정경화·

이윤아, 2012; 민현숙·문영경, 201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떠한 변화 추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본 국내 종단연구는 아직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다. Crnic 등(2005)은 자녀의 연령이 3세에서 5세가 될 때까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5회에 걸쳐 측정하였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안정적인 형태를 보였으나 누적된 스트레스는 양육행동과 아동적응에서 문제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켰다. 또한 축적된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행동 및 일상생활에서의 모-자녀 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국내에서는 2008년부터 4차 연도까지 축적된 한국아동패널데이터(육아정책연구소, 2013)를 활용한 종단연구 결과가 보고되어 왔다. 출산 후 2~3년 동안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화 궤적은 선형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어머니의 다양한 상황 및 환경이 양육스트레스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민·이보람, 2013; 이희정, 2013; 최효식·연은모·권수진·홍윤정, 2013). 이러한 국내 종단연구는 앞서 양육스트레스가 안정적인 형태를 보였다는 연구(Crnic et al., 2005), 그리고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하다가 자녀의 연령이 2세에서 3세 사이(Mulsow, Calera, Pusley, & Reifman, 2002) 혹은 2세에서 5세 사이(Williford, Calkins, & Keane, 2007)에 감소한다는 연구와 같은 국외 종단연구 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보고하고 있다. 이에 아동패널데이터에 5차 연도 자료가 추가됨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화 궤적이 기존 4개 연도 데이터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선형적으로 증가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아동패널데이터를 활용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어머니의 자녀가치와 양육지식(최효식 외, 2013), 부부관계의 질(서주현·김진경, 2012) 및 부부갈등의 정도(이희정, 2013), 자녀의 부정적 정서성(김혜라·김진경, 2012; 신지연, 2011), 그리고 육아지원기관 및 지역사회 양육환경 만족도(이정민·이보람, 2013) 등 다양한 요인들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화의 개인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기질(정서성, 활동성)에 초점을 두어 자녀가 출생 직후부터 유아기에 이르는 생애 초기 동안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정서성은 아동이 부정적인 정서를 빈번하게 나타내는 정도를 의미하며, 활동성은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고 활동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정도를 의미한다(육아정책연구소, 2013). 자녀의 기질적 특성은 출산 직후부터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개인차를 야기할 수 있고, 자녀의 행동 및 적응 전반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Rothbart & Bates, 1998)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변화 양상에도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특정 시점에서 정서성 및 활동성과 같은

자녀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변인임을 입증하였는데, 정서성과 활동성이 높을수록, 즉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하고 더 활동적으로 움직일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혜라·김진경, 2012; 남혜순, 2003; 서석원·이대균, 2013; 신지연, 2011). 특히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표출하는 정서성이 높은 경우에 활동 수준이 높은 경우보다 어머니에게 더 민감한 스트레스원으로 인지되었다(권미경, 2011).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자녀의 기질적 특성이 양육스트레스의 변화 양상에도 장기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칠 것인지 입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질은 비교적 안정적인 특성이 있어 이후의 행동 및 성격 발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발달 과정 중 나타날 수 있는 문제행동과의 관련성이 인정받고 있다(Rothbart & Bates, 2006). 외향적인 기질은 외현화 문제의 가능성을 높이고, 쉽게 화를 내거나 좌절, 불안해하는 기질은 내재화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othbart, 2007). 영유아기에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하여 애착 및 사회정서발달의 기초가 형성되고, 이는 자녀의 성장과정에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Kochanska, 2001; Tharner et al., 2012)로 미루어볼 때, 문제행동 중에서도 사회정서발달의 지표가 될 수 있는 내재화 문제에 초점을 두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내재화 문제는 소극적이고 위축된 행동, 정서불안, 신체 증상 등 내재화되고 지나치게 통제된 행동을 반영한다(도남희 외, 2013).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간의 관계, 그리고 자녀의 기질과 양육스트레스 및 내재화 문제 간의 관계를 종합하여 고려하면 기질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이후의 내재화 문제와도 관련이 있으며, 양육스트레스 변화 양상은 기질과 내재화 문제 간의 관계에 매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Fox와 Calkins(1993)는 부정적 반응성과 불안이 모두 높은 영아는 14개월 정도에 또래로부터 고립되고 위축될 수 있지만, 지지적인 양육을 통해서 행동의 결과가 바뀔 수 있음을 밝혔다. 타고난 기질이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부모의 양육 특성이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김숙령 등(2012)의 연구에서도 영아의 활동성, 반응성 등과 같은 기질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영아의 불안, 우울, 친사회성과 같은 심리적 특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아 자녀의 타고난 기질, 출산 후부터 유아기까지 양육스트레스의 변화 양상, 그리고 이후 유아기 자녀의 내재화 문제 간의 관계를 종단 자료를 통하여 살펴봄으로써 이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더욱 명확히 하고자 한다.

한편 영유아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양육스트레스 수준 및 양육스트레스와 자녀 발달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변인이다. 취업모는 일·가정 양립에 대한 부담이 있고, 자녀 돌봄을 위한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양질의 대리양육기관이나 대리양육자를 확보한 경우에는 개인 시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함과 동시에 양육부담 및 스트레스가 분산될 수 있다. 자녀양육을 전담하는 비취업모는 가장 이상적인 주양육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신체적·정서적으로 쉴 새 없이 돌봄이 요구되는 영유아기 자녀로 인한 책임감과 부담감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양육스트레스의 관계를 살펴본 국내 선행 연구들의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다. 어머니와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취업모가 더 큰 양육스트레스를 받고 있기도 하고(백영숙, 2007), 자녀양육을 전담하고 있는 비취업모가 개인시간 부족, 신체 피로, 사회적 고립감 등으로 더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한다(손수민, 2012). 또한 양육스트레스는 단순히 취업여부보다는 가정과 직장의 특성 및 대인관계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는 결과(김기원·도현심·김상원·이선희, 2010)가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의 변화 양상이 서로 다른지, 이는 자녀의 내재화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횡단적으로 살펴본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아직까지 국내에서 양육스트레스의 변화 궤적과 관련 변인들 간의 구조 관계를 종단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5차 연도(2008~2012년)에 걸쳐 축적된 아동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자녀의 기질 및 내재화 문제와의 구조 관계를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영유아기(0-4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화 궤적은 어떠한가, 이 변화 궤적에 유의한 개인차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화 궤적, 자녀의 기질(정서성, 활동성), 자녀의 내재화 문제(정서적 반응성, 불안/우울, 신체증상, 위축)의 구조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화 궤적, 자녀의 기질(정서성, 활동성), 내재화 문제(정서적 반응성, 불안/우울, 신체증상, 위축)의 구조관계는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제공하는 한국아동패널데이터의 1~5차 연도(2008~2012년) 2,150가구의 자료를 활용하여 자녀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변화 궤적이 자녀의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한국아동패널데이터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2008년도에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신생아 패널을 구축하여 패널 아동이 만 0세부터 만 7세가 될 때까지 매년 1회, 이후 만 9세와 만 12세에 각 1회씩 총 10차에 걸쳐 구축되는 전국 단위의 데이터이다. 이 중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변화 궤적을 살펴보기 위하여 자녀 출생 후 만 4세에 이르기까지 어머니가 매년 응답한 5개 연도의 양육스트레스, 1차 연도에 조사되었던 자녀의 기질(정서성, 활동성), 그리고 5차 연도에 처음 조사된 자녀 문제행동에 대한 문항 중 내재화 문제(정서적 반응성, 불안/우울, 신체증상, 위축)이다. 1차 연도의 표본은 층화 다단계 표본추출법을 적용하여 추출되었으며 총 2,150가구가 최종 패널에 포함되었고, 2차 1,904가구, 3차 1,802가구, 4차 1,754가구, 5차 1,703가구가 참여하였다(육아정책연구소, 2014).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주요 변인에 따른 척도는 다음과 같다.

가. 양육스트레스

먼저 한국아동패널조사에서 1~5차 연도에 걸쳐 조사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PSI-SF)을 기초로 한국형으로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 중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되었다(육아정책연구소, 2013). 이 문항들은 부모역할 수행에 따른 부담감과 부모가 인지하는 어려움 등을 반영하고 있다.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1, 2차 연도에는 예비조사에서 문항 진술이 명확하지 않았던 1문항과 자녀의 연령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된 1문항을 제외한 총 10문항으로 조사되었으며 3~5차 연도에는 연령에 적합하지 않았던 1문항을 다시 포함시켜 총 11문항

으로 조사되었다(육아정책연구소, 2013). 문항내용에는 “아이가 태어난 후 예전만큼 나의 생활이 즐겁지 않다”,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내 탓인 것 같아 괴롭다” 등이 포함되었다.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문항신뢰도 Cronbach α 는 1차 .840, 2차 .850, 3차 .865, 4차 .874, 5차 .881이었다.

나. 기질

자녀의 기질은 Buss와 Plomin(1984)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1세부터 9세까지 적용 가능한 부모용 EAS 기질척도(The EAS - Emotionality, Activity and Sociability - Temperament Survey for Children-Parental Ratings)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EAS 기질 척도는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의 3개 하위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사회성 영역의 문항은 1세 미만 영아에게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차 연도 조사에서는 제외되었다(육아정책연구소, 2013). 정서성(5문항)은 “우리 아이는 잘 운다”, “우리 아이는 화가 났을 때 격하게 반응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활동성(5문항)은 “우리 아이는 항상 끊임없이 움직인다”, “우리 아이는 활동적인 놀이보다는 조용하고 정적인 놀이를 더 좋아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정서성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를 더욱 빈번하게 나타내며, 활동성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더욱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특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기질은 5차 연도에 걸쳐 매년 측정된 데이터가 제공되었으나, 기질은 아동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고유한 속성이며 시간에 따라 비교적 안정적인 특성(Rothbart & Bates, 1998)으로 보아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만 0세인 1차 연도에 측정된 자료만 활용하였다. 1차 연도 아동의 기질은 2010년 4월부터 8월까지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같은 기간에 조사원이 병원에 방문하여 면접조사한 자료이다(육아정책연구소, 2013). 각 요인별로 신뢰도 Cronbach α 는 정서성 .732, 활동성 .694 이었고,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689이었다.

다. 내재화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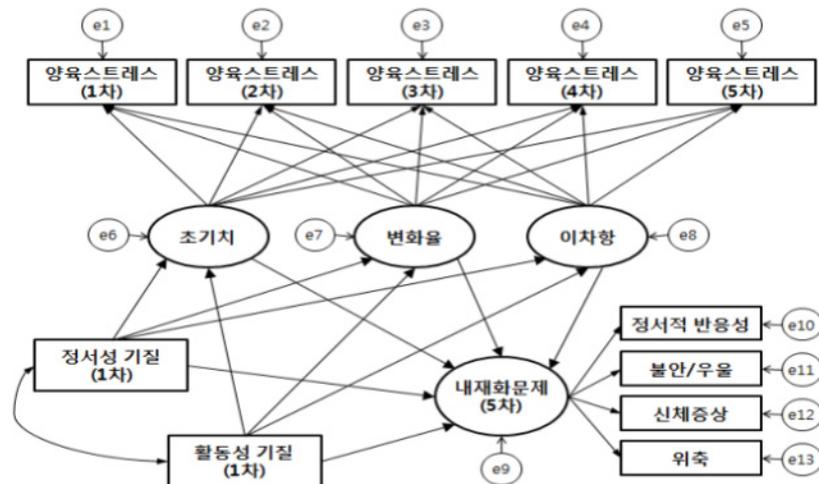
자녀의 내재화 문제는 Achenbach와 Rescorla(2000)가 개발한 CBCL 1.5-5를 오경자와 김영아(2009)가 우리말로 번역하여 표준화한 한국판 CBCL 1.5-5(한국판 영유아 행동평가척도 부모용; Korean version of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for ages 1.5-5)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도남희 외, 2013). 이 척도는 취학 전 연령인 18개월에

서 5세까지의 영유아들에게서 관찰되는 정서행동문제를 평가하기에 적합한 100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3점 척도(0: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 2: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로 부모가 평정하도록 하였다. 이 척도는 내재화 문제행동(정서적 반응성, 불안/우울, 신체증상, 위축) 및 외현화 문제행동(주의집중문제, 공격행동, 수면문제, 기타문제)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만 4세(평균월령 52개월)인 5차 연도에 측정된 내재화 문제행동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반응성(9문항)은 낯선 상황이나 일상생활의 변화에 대한 정서적 안정성을 의미하며 “감정이나 기분이 갑자기 변하곤 한다”, “새로운 사람이나 새로운 상황에 부딪히면 불편해 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불안/우울(8문항)은 긴장, 불안, 우울 등 부정적인 감정과 관련된 문항으로 “별 이유 없이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 “지나치게 겁이 많거나 불안해 한다” 등이 있다. 신체증상(11문항)은 분명한 의학적 곤란 없이 나타나는 배앓이, 두통과 같은 신체적 불편감 및 불분명한 예민함과 관련이 있으며, “의학적으로 밝혀진 이유 없이 머리가 아프다고 한다”, “정돈과 청결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을 쓴다” 등의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위축(8문항)은 연령대에 비해 어리고 조심스러운 행동 및 무관심을 의미하며 “사람들이 말을 걸어도 대답을 잘 안 한다”, “위축되어 남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요인별 신뢰도 Cronbach α 는 정서적 반응성 .731, 불안/우울 .716, 신체증상 .543, 위축 .646이었고, 내재화 문제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867이었다.

3. 연구모형 및 자료의 분석

선행연구에 따라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모형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1차 연도에 측정된 아동의 기질은 생물학적으로 나타나는 고유한 속성이며 시간이 지나도 비교적 안정적인 특성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화에 장기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또한 기질이 이후 관찰되는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화 궤적이 매개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즉, 아동의 기질은 내재화 문제의 정도에 직접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내재화 문제에 간접효과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 모형을 통해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화 궤적이 아동의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의 구조관계가 어떠한지 확인하였다.



[그림 1] 연구 모형

자료는 SPSS 및 AMO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분석되었다. 자녀가 만 0세에서 만 4세에 이르기까지 5년 동안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변화 궤적의 양상이 어떠한지, 그리고 이 변화 궤적에 개인차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ing)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자녀의 타고난 기질(정서성, 활동성)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화 궤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자녀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변화 궤적이 자녀의 내재화 문제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방정식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변인들의 영향력이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단 조사에서 발생하게 되는 결측치를 처리하기 위해 AMOS에서 제공하는 완전 정보최대우도법(FIML: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모든 변인에서 결측치가 하나라도 있는 케이스를 아예 제외하는 listwise나 두 변인 사이에서 나타나는 결측치만 제거하는 pairwise와 같은 전통적인 방법보다 더 정확한 추정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rbuckle, 1996; 홍세희·유숙경, 2004, 재인용). 이 방법은 특히 패널자료와 같은 중단조사의 특성상 결측치가 다수 발생하였을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χ^2 값과 함께 절대적합지수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와 증분적합지수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를 사용하였다. χ^2 값의 p-value가 .05이상일 때 검증모형이 실제

데이터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χ^2 검증의 영가설이 매우 엄격하여 모형이 너무 쉽게 기각되며 χ^2 값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여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유의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Klein,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적합도지수 RMSEA, TLI, CFI를 함께 고려하여 모형적합도를 판단하였는데, 이들은 표본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RMSEA와 TLI의 경우 모형의 간명성까지 고려한다(홍세희, 2000). RMSEA는 .05 이하, TLI, CFI는 .90 이상일 때 모형의 적합성이 좋음을 의미한다.

III. 연구결과

1. 기술통계

측정시기별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1차 연도 영아의 기질, 그리고 5차 연도 유아 내재화 문제의 기술통계량은 <표 1>과 같다.

<표 1>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결과

측정변인		<i>N</i>	<i>M</i>	<i>SD</i>	왜도	첨도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1차 양육스트레스	1,849	2.74	.62	.13	.05
	2차 양육스트레스	1,887	2.73	.64	.08	.07
	3차 양육스트레스	1,761	2.79	.63	.04	.36
	4차 양육스트레스	1,693	2.79	.64	-.01	-.03
	5차 양육스트레스	1,669	2.73	.66	.09	-.03
자녀 기질	1차 정서성 기질	2,044	2.72	.61	.39	.29
	1차 활동성 기질	2,058	3.73	.55	.00	-.16
자녀 내재화 문제	5차 정서적 반응성	1,694	2.19	2.23	1.25	1.59
	5차 불안/우울	1,694	2.87	2.20	.88	1.15
	5차 신체증상	1,694	1.62	1.75	1.69	4.38
	5차 위축	1,694	1.74	1.79	1.38	2.45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평균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은 1차 2.74, 2차 2.73, 3차와 4차 2.79, 5차 2.73으로, 2차 연도에 소폭 감소한 후 3, 4차 연도까지는 증가추세가 유지되다가 5차 연도에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연도 영아 기질의 평균은 정서성 2.72, 활동성 3.73으로, 영아의 활동성이 어머니에게 더 높게 인지되었다. 5차 연도 유아 내재화 문제의 평균은 영역별로 1.62에서 2.87로 나타났으며, 유아의 내재화 문제 중 신체증상이 가장 낮게, 불안/우울이 가장 높게 인지되었다. 본 연구에서 모수 추정을 위해

사용된 최대우도법은 데이터가 정규성 가정을 크게 위반할 경우 왜곡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Curran, West, & Finch, 1996),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통해 각 변인의 정규성을 검토하였다. 왜도 및 첨도 값을 확인한 결과 왜도 ± 2 미만, 첨도 ± 7 미만으로(West, Finch, & Curran, 1995) 정상 분포를 가정할 수 있었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자녀의 기질 및 내재화 문제의 기술통계 결과는 <표 2>와 같다. 5회에 걸쳐 측정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는 전반적으로 비취업모가 취업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어머니 취업여부에 상관없이 양육스트레스의 변화 양상은 2차 연도에 소폭 감소하고 3차 연도에 증가하며 5차 연도에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변화 양상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자녀의 정서성 기질은 비취업모가 취업모보다 더 높게 인지하였으며, 자녀의 활동성 기질은 취업모가 비취업모보다 더 높게 인지하였다. 유아기 자녀의 내재화문제는 하위 4개 항목 모두 비취업모가 취업모보다 더 높게 인지하였다.

<표 2>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결과

측정변인	취업모					비취업모				
	N	M	SD	왜도	첨도	N	M	SD	왜도	첨도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1차 양육스트레스	575	2.67	.63	.20	.05	1,271	2.77	.61	.10	.08
2차 양육스트레스	578	2.64	.62	.05	-.15	1,253	2.76	.64	.11	.18
3차 양육스트레스	541	2.71	.62	.06	.05	1,159	2.82	.64	.03	.49
4차 양육스트레스	523	2.73	.65	.08	-.08	1,122	2.82	.64	-.06	.05
5차 양육스트레스	510	2.66	.67	.02	-.28	1,110	2.77	.65	.14	.07
자녀 기질										
1차 정서성 기질	653	2.68	.61	.38	.08	1,387	2.73	.61	.39	.40
1차 활동성 기질	658	3.77	.52	.02	-.13	1,396	3.70	.55	.01	-.18
자녀 내재화 문제										
5차 정서적 반응성	522	2.06	2.15	1.42	2.68	1,123	2.24	2.26	1.19	1.23
5차 불안/우울	522	2.74	1.19	1.16	2.49	1,123	2.94	2.20	.74	.59
5차 신체증상	522	1.59	1.69	1.57	3.89	1,123	1.64	1.77	1.69	4.39
5차 위축	522	1.61	1.71	1.38	2.16	1,123	1.80	1.81	1.35	2.46

2.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잠재성장모형

2008년에서 2012년까지 5개 시점에서 동일하게 측정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변화 궤적을 추정하기 위해 무조건모형으로 무변화 모형, 선형 모형, 비선형 모형(이차함수 모형)을 설정하여 모형적합도를 비교하였다(표 3 참조). 각각의 모형에 대한 검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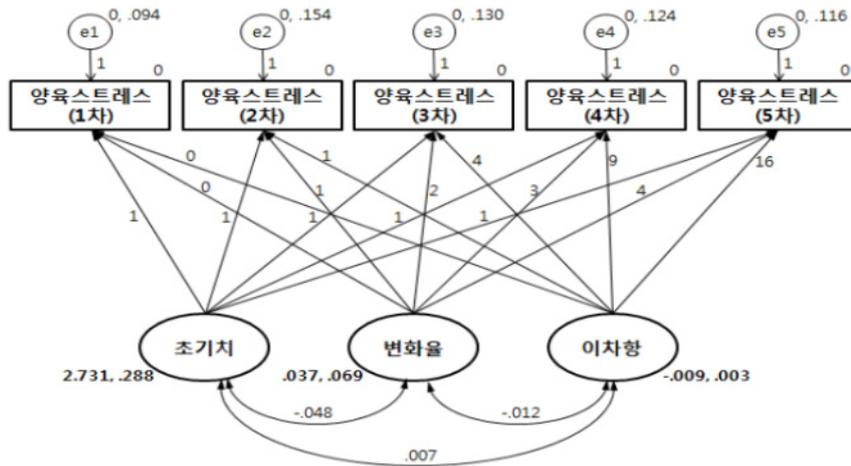
는 <표 3>과 같다.

<표 3>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변화의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모형	성장요인(평균)	χ^2	df	p	TLI	CFI	RMSEA
무변화 모형	초기치 (2.753 ^{***})	215.425	13	.000	.945	.953	.085(.075-.095)
선형 모형	초기치, 변화율 (2.746 ^{***} , .003)	78.885	10	.000	.976	.984	.057(.045-.069)
이차함수 모형	초기치, 변화율, 이차항 (2.731 ^{***} , .037 ^{***} , -.009 ^{***})	31.152	6	.000	.985	.994	.044(.030-.060)

^{***} p < .001

5개 연도에 걸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변화 궤적을 보다 잘 설명하는 모형을 선택하기 위하여 χ^2 값과 TLI, CFI, RMSEA 값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양육스트레스의 변화 궤적은 비선형 모형(이차함수 모형)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형 모형의 경우 변화율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양육스트레스가 선형으로 증가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모형적합도에서 TLI, CFI 값이 1.0에 더 가깝고 RMSEA 값이 .05 이하이며, RMSEA 값의 90% 신뢰구간의 상한값이 .08(혹은 .10)보다 작으면 적합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종 선택된 모형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양육스트레스 잠재성장모형

최적 모형인 이차함수 모형의 모수 추정치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앞서 기술통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증가하지만, 그 증가세가 점차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변화율의 예측평균은 .037로, 자녀의 연령이 0세에서 4세에 이르는 5년 동안 양육스트레스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변화율의 변화를 의미하는 이차항 계수의 예측평균은 -.009로 양육스트레스의 변화율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육스트레스는 증가하지만 증가율이 점차 작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양육스트레스의 초기치, 변화율, 이차항의 분산도 유의하게 나타나 양육스트레스 변화 궤적에 있어서 개인차가 유의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초기치와 변화율 및 이차항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1차 연도에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일수록 초기 양육스트레스는 느리게 증가하지만($r = -.345, p < .001$),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 = .248, p < .01$).

<표 4>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변화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의 추정치: 이차함수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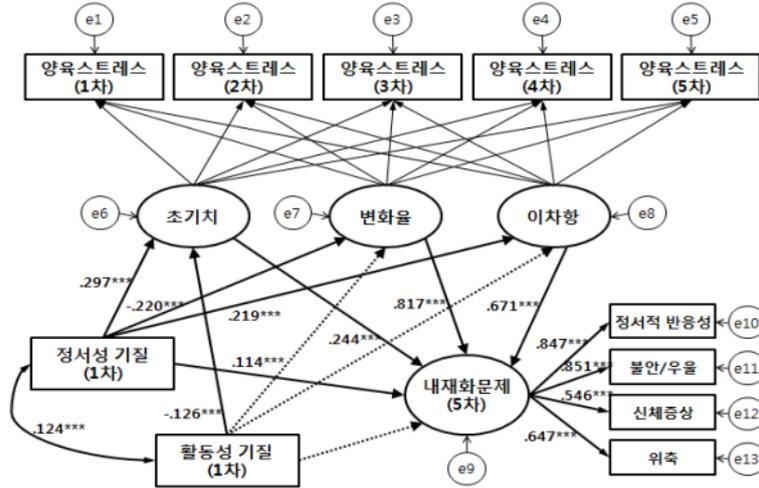
구분	초기치	변화율	이차항
평균	2.731***	.037***	-.009***
분산	.288**	.069***	.003**
공분산	초기치 ↔ 변화율 = -.048(-.345)***		
	초기치 ↔ 이차항 = .007(.248)**		
	변화율 ↔ 이차항 = -.012(-.919)***		

주: 괄호 안은 표준화된 상관계수

** $p < .01$, *** $p < .001$

3. 자녀의 기질 및 양육스트레스의 변화 궤적이 자녀의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조모형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변화 궤적과 1차 연도 자녀의 기질, 그리고 5차 연도 자녀의 내재화 문제 사이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그림 3]과 같이 구조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주 1) 유의한 경로는 실선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는 점선으로 표시
 2) 모형에 표기된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
 *** $p < .001$

[그림 3] 자녀의 기질 및 양육스트레스 변화 궤적이 자녀의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조모형

구조모형의 모형적합도는 $\chi^2=87.998(df=35, p<.001)$, TLI=.986, CFI=.993, RMSEA=.027로 좋은 것으로 나타나 이 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즉,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변화 궤적과 1차 연도 자녀의 기질, 그리고 5차 연도 자녀의 내재화 문제는 인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5>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구조모형 적합도

모형	χ^2	df	p	TLI	CFI	RMSEA
구조모형 (양육스트레스 변화, 기질, 내재화 문제)	87.998	35	.000	.986	.993	.027(.020-.034)

각 변인들 간의 영향력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구조모형에서 1차 연도 자녀의 정서성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화 궤적을 매개로 5차 연도의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의 경로는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1차 연도에 측정된 자녀의 정서성 기질은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초기치($\beta=.297, p<.001$), 변화율($\beta=-.220, p<.001$), 이차항($\beta=.219, p<.001$), 그리고 5차 연도에 측정된

자녀의 내재화 문제($\beta=.114, p<.001$)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자녀가 칭얼대거나 투덜대는 등 부정적 정서를 자주 보인다고 여기는 어머니일수록 양육스트레스의 초기값이 더 높았고, 양육스트레스의 초기 증가율은 더 낮았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양육스트레스가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차 연도에 측정된 자녀의 활동성 기질은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초기치($\beta=-.127, p<.001$)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가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지각하는 어머니일수록 양육스트레스의 초기치가 유의하게 낮았고, 양육스트레스 변화율 및 이차항, 5차 연도 자녀의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초기치($\beta=.244, p<.001$), 변화율($\beta=.817, p<.001$), 그리고 이차항($\beta=.671, p<.001$)이 5차 연도 자녀의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모두 유의하였다. 즉,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궤적은 5차 연도 자녀의 내재화 문제 지각 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초기치가 높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녀의 내재화 문제를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자주 보인다고 지각한 어머니들은 5차 연도 자녀의 내재화 문제(정서적 반응성, 불안/우울, 신체증상, 위축) 또한 더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beta=.352, p<.001$). 1차 연도 자녀의 정서성 기질은 5차 연도 자녀의 내재화 문제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변화 궤적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1차 연도 자녀의 활동성 기질은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초기치를 통해 5차 연도 자녀의 내재화 문제에 간접적인 영향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화 궤적은 1차 연도 자녀의 정서성 기질과 5차 연도 자녀의 내재화 문제를 부분매개하였고, 1차 연도 자녀의 활동성 기질과 5차 연도 자녀의 내재화 문제를 완전매개하였다.

이 모형에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변화 궤적의 예측평균은 초기치(2.484), 변화율(.310), 그리고 이차항(-.080)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즉 자녀의 정서성 및 활동성 기질을 통제하였을 때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변화 궤적은 기울기가 점차 완만해지며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구조모형의 추정치

구분	B	S.E.	β
경로			
정서성(1차)→양육스트레스 초기치	.264***	.022	.297
정서성(1차)→양육스트레스 변화율	-.099***	.018	-.220
정서성(1차)→양육스트레스 이차항	.019***	.004	.219
활동성(1차)→양육스트레스 초기치	-.126***	.025	-.127
활동성(1차)→양육스트레스 변화율	-.001	.020	-.002
활동성(1차)→양육스트레스 이차항	.005	.005	.049
양육스트레스 초기치→내재화 문제(5차)	.847***	.109	.244
양육스트레스 변화율→내재화 문제(5차)	5.631***	.921	.817
양육스트레스 이차항→내재화 문제(5차)	23.316***	5.669	.671
정서성(1차)→내재화 문제(5차)	.352***	.094	.114
활동성(1차)→내재화 문제(5차)	-.137	.095	-.040
미지수(Parameter)			
양육스트레스 초기치	2.484***	.105	
양육스트레스 변화율	.310***	.086	
양육스트레스 이차항	-.080***	.020	

*** $p < .001$

4.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다집단분석

위에서 설정한 잠재성장모형 및 구조모형에 대하여,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집단 간 모형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집단분석(Multiple 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집단분석은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볼 때 각 경로에서 집단 간 차이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경우 양육스트레스의 변화궤적이 어떻게 다른지, 자녀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화 궤적이 자녀의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의 경로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볼 수 있다.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한국아동패널 조사에서 2008년도에 조사된 소득활동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현재 일을 하고 있거나 학생(휴학생 포함)인 경우를 취업모로, 전업주부 또는 무직인 경우를 비취업모로 분류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가.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변화 궤적의 차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잠재성장모형(무조건모형)이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저모형의 모형적합도는

$\chi^2=35.588(df=12, p<.001)$, TLI=.986, CFI=.994, RMSEA=.031(.019-.043)로 모형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저모형을 통해 취업모와 비취업모 집단 간 양육스트레스 변화 궤적의 추정치를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기저모형을 통해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초기치 예측평균은 2.653($p<.001$), 변량은 .252($p<.001$)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자녀가 만 0세인 1차 연도 시점에서 양육스트레스 수준은 취업모들 간에도 개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업모의 경우 변화율 및 이차항의 예측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시간에 따른 유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취업모의 경우 초기치(2.764, $p<.001$), 변화율(.038, $p<.01$), 이차항(-.009, $p<.01$)의 예측평균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비취업모의 경우 양육스트레스 수준은 시간에 따라 증가하지만 점차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이차곡선의 형태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취업모 집단의 초기치(.297), 변화율(.081), 이차항(.003)의 변량 또한 유의수준 .001에서 모두 유의하여, 시간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변화 궤적에 비취업모들 간에도 개인차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형태동일성 검증을 통해 두 집단 간 양육스트레스 기울기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지만, 양육스트레스 초기치의 경우 비취업모 집단이 취업모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절편요인의 평균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한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변화궤적의 추정치

미지수(parameter)	평균(표준오차)		변량(표준오차)	
	취업모	비취업모	취업모	비취업모
초기치	2.653(.025)***	2.764(.017)***	.252(.030)***	.297(.021)***
변화율	.031(.020)	.038(.013)**	.036(.021) ⁺	.081(.014)***
이차항	-.007(.005)	-.009(.003)**	.002(.001)	.003(.001)***
공분산(초기치↔변화율)	-.017(.022)	-.060(.015)***	-	-
공분산(초기치↔이차항)	.002(.005)	.009(.003)**	-	-
공분산(변화율↔이차항)	-.007(.005)	-.015(.003)***	-	-

⁺ $p < .10$, ** $p < .01$, *** $p < .001$

이를 위하여 기저모형에 대하여 초기치의 평균을 집단 간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절편요인의 평균동일성)을 비교하여 모형 간의 χ^2 차이가 유의한지 살펴보았다. <표 8>을 보면 제약모형의 경우 $\chi^2=49.118(df=13, p<.001)$, TLI=.980, CFI=.991, RMSEA=.037로 모형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저모형과 제약모형의 χ^2 차 검증 결과 두 모형이 동일하다는 영가설이 기각되어(CV: $.95\chi^2_1=3.84$), 두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 모형임을 확인하였다. 즉,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초기치 평균이 취업모에 비해 유의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잠재성장모형의 모형동일성 검증

모형	χ^2	df	TLI	CFI	RMSEA	$\Delta\chi^2$	Δdf
형태동일성	35.588	12	.986	.994	.031		
절편요인의 평균동일성	49.118	13	.980	.991	.037	13.530	1

나.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구조모형의 차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화 및 자녀의 기질이 자녀의 내재화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구조모형에 대하여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라 잠재변수 간의 경로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모형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이 취업모와 비취업모 집단 모두의 경우에 적합한 모형인지 확인하는 형태동일성(기저모형)을 검증하였다.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기저모형의 $\chi^2=127.405(df=70, p<.001)$, TLI=.984, CFI=.992, RMSEA=.020으로 모형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 형태동일성이 확보되었다.

다음으로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간의 경로(요인부하량)를 동일하게 제약한 후, 기저모형과의 적합도 차이를 비교하는 측정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기저모형과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제약모형과의 χ^2 차이를 살펴보았다. 제약모형의 $\chi^2=127.914(df=73, p<.001)$, TLI=.986, CFI=.992, RMSEA=.019로 모형적합도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저모형과 제약모형의 χ^2 차 검증 결과 두 모형이 동일하다는 영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였다(CV: $.95\chi^2_3=7.81$). 이는 취업모, 비취업모 집단 모두 자녀 내재화문제의 측정도구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요인부하량의 측정동일성이 검증되었다.

측정동일성에 문제가 없으므로 이 모형을 기저모형으로 하여 잠재변수 간 경로를 제약한 모형과의 적합도 차이를 비교하는 구조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제약모형의 $\chi^2=146.119(df=84, p<.001)$, TLI=.986, CFI=.991, RMSEA=.019로 모형적합도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저모형과 제약모형의 χ^2 차 검증 결과 두 모형이 동일하다는 영가설이 채택되어(CV: $.95\chi^2_{11}=19.68$), 취업모와 비취업모 집단의 잠재변수 간 영향력의 경로는 모두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표 9〉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구조모형의 모형동일성 검증

모형	χ^2	df	TLI	CFI	RMSEA	$\Delta\chi^2$	Δdf
기저모형(형태동일성)	127.405	70	.984	.992	.020		
측정동일성 모형	127.914	73	.986	.992	.019	.509	3
구조동일성 모형	146.119	84	.986	.991	.019	18.205	11

주: $p < .05$ 수준에서 카이제곱차 검증

모형동일성 검증을 통해 최종 채택된 구조동일성 모형에 대하여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다집단분석 결과를 정리해보면 〈표 10〉과 같다.

〈표 10〉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다집단분석

구분	취업모			비취업모		
	B	S.E.	β	B	S.E.	β
경로						
정서성(1차)→양육스트레스 초기치	.261***	.022	.309	.261***	.022	.290
정서성(1차)→양육스트레스 변화율	-.098***	.018	-.311	-.098***	.018	-.202
정서성(1차)→양육스트레스 이차항	.020***	.004	.305	.020***	.004	.208
활동성(1차)→양육스트레스 초기치	-.122***	.025	-.124	-.122***	.025	-.123
활동성(1차)→양육스트레스 변화율	.002	.020	.005	.002	.020	.003
활동성(1차)→양육스트레스 이차항	.004	.005	.058	.004	.005	.042
양육스트레스 초기치→내재화 문제(5차)	.883***	.112	.248	.883***	.112	.256
양육스트레스 변화율→내재화 문제(5차)	6.131***	1.003	.641	6.131***	1.003	.959
양육스트레스 이차항→내재화 문제(5차)	27.235***	6.923	.579	27.235***	6.923	.822
정서성(1차)→내재화 문제(5차)	.319***	.097	.106	.319***	.097	.103
활동성(1차)→내재화 문제(5차)	-.139	.098	-.040	-.139	.098	-.041
미지수(Parameter)						
양육스트레스 초기치	2.414***	.107		2.504***	.105	
양육스트레스 변화율	.289***	.088		.301***	.086	
양육스트레스 이차항	-.076***	.020		-.079***	.020	

*** $p < .001$

두 집단 모두 1차 연도의 기질(정서성, 활동성)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화 궤적을 매개로 하여 5차 연도의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의 경로가 모두 동일하였다. 먼저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1차 연도에 측정된 자녀의 정서성 기질은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초기치, 변화율, 이차항, 그리고 5차 연도에 측정된 자녀의 내재화 문제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더 자주 표현한다고 지각하는 어머니일수록 1차 연도의 양육스트레스는 유의하게 더 높았고($B=.261, p<.001$), 양육스트레스의 초기 증가율은 더 낮았으며($B=-.098, p<.001$),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속도는 더 빠른($B=.020, p<.001$)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더 자주 표현한다고 지각하는 어머니들은 5차 연도에 자녀의 내재화 문제(정서적 반응성, 불안/우울, 신체증상, 위축) 또한 더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B=.319, p<.001$). 한편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1차 연도에 측정된 자녀의 활동성 기질은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초기치($B=-.122, p<.001$)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자녀가 움직임이 많고 더 활발하다고 지각하는 어머니일수록 양육스트레스의 초기치가 유의하게 더 낮았다. 활동성 기질이 시간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변화 양상 및 5차 연도에 어머니가 지각한 자녀의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의 정서성과 활동성 기질을 통제한 상태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화 궤적이 5차 연도 자녀의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초기치($B=.883, p<.001$), 변화율($B=6.131, p<.001$), 이차항($B=27.235, p<.001$)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초기치가 높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증가할수록 자녀의 내재화문제를 더 높게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자녀의 타고난 기질(정서성, 활동성)이 이후의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화 궤적이 미치는 매개효과의 경로는 취업모와 비취업모가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화 궤적(초기치, 변화율, 이차항)은 자녀의 정서성 기질이 이후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부분매개 효과가 있고, 자녀의 활동성 기질은 이후 내재화 문제에 대한 직접효과는 없으며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초기치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구조모형에서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의 변화 궤적에서 취업모와 비취업모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자녀의 기질을 통제하였을 때 두 집단 모두 양육스트레스 초기치, 변화율, 이차항의 예측평균은 모두 유의하였다. 두 집단 모두 자녀가 영아기에서 유아기로 갈수록 양육스트레스의 증가가 더욱 완만하게 이루어지는 형태이지만 비취업모의 경우 취업모에 비해 양육스트레스의 초기치가 더 높고(비취업모=2.504, 취업모=2.414, $p<.001$), 양육스트레스의 초기 증가율 또한 높으며(비취업모=.301, 취업모=.289, $p<.001$),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속도는 더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비취업모=-.079, 취업모=-.076, $p<.001$).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양육스트레스 초기치, 변화율, 이차항의 평균을 제약한 절편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표 11 참조). 먼저 기저모형(구조동일성)과 양육스트레스 초기치, 변화율, 이차항의 평균을 모두 제약한 모형 간에 χ^2 차 검증을 실시한 결과(omnibus test), $\chi^2=160.739(df=87, p<.001)$, TLI=.984, CFI=.989, RMSEA=.020으로 모형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저모형과 제약모형의 χ^2 차 검증 결과 두 모형이 동일하다는 영가설이 기각되어(CV: $.95\chi^2_3=7.81$), 두 모형 간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값, 변화율, 이차항의 평균이 취업모, 비취업모 집단에서 모두 동일하지는 않으며 적어도 하나는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초기값, 변화율, 이차항의 평균 각각에 대하여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기저모형과 초기값 평균만을 제약한 모형 간 χ^2 차 검증 결과, 두 모형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CV: $.95\chi^2_1=3.84$). 즉, 자녀의 기질을 통제하였을 때 양육스트레스 초기치는 비취업모가 취업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 변화율 및 이차항의 평균을 각각 제약한 모형의 χ^2 차 검증 결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취업모와 비취업모 집단의 양육스트레스 변화율 및 이차항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표 11〉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구조모형의 절편동일성 검증

모형	χ^2	df	TLI	CFI	RMSEA	$\Delta\chi^2$	Δdf
기저모형(구조동일성)	146.119	84	.986	.991	.019		
Omnibus Test	160.739	87	.984	.989	.020	14.620	3
Posthoc Test 1(초기치)	155.324	85	.984	.990	.020	9.205	1
Posthoc Test 2(변화율)	146.354	85	.986	.991	.019	.235	1
Posthoc Test 3(이차항)	146.371	85	.986	.991	.019	.252	1

주: $p < .05$ 수준에서 카이제곱차 검증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아동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화 궤적을 살펴보고, 이러한 양육스트레스 변화 궤적이 자녀의 기질(정서성, 활동성)과 함께 이후 자녀의 내재화 문제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단적

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종합하고 이를 통해 논의 및 정책적 제언을 이끌어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통해 살펴본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화 궤적은 비선형 모형(이차함수 모형)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양육스트레스는 증가하되 증가율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성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자녀가 유아기인 경우보다 출산 초기 및 영아기인 경우 양육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증가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기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하다가 유아기에 감소한다는 선행연구들(Muslow et al., 2002; Williford et al., 2007)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또한 이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선형으로 증가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이정민·이보람, 2013)와는 달리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하다가 시간이 흘러 자녀가 성장할수록 일정 수준으로 수렴하는 천장 효과(ceiling effect)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아기는 발달 과정 중에서도 절대적인 돌봄 시간의 요구(수유, 이유, 수면, 배변 등)가 가장 많은 시기이며, 출산 전과 비교하여 어머니의 신체적 피로감과 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이 급격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권미경, 2011). 영아기, 유아기,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횡단적으로 비교한 패널 연구에서도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박혜준·한경혜·박새롬·장미나·전을정, 2013). 특히 첫 자녀인 경우에는 부모됨에 적응하는 시기이므로 더욱 큰 혼란을 경험할 수 있다(문혁준, 2005). 즉 출산 초기 및 영아기는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에 대처하고 부모역할에 적응하도록 도울 수 있는 개입이 가장 크게 요구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으므로 예비 부모 및 영아기 자녀를 둔 가족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둘째, 자녀의 타고난 정서성 및 활동성 기질은 양육스트레스 변화 궤적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더 자주, 더 강하게 표출한다고 지각하는 어머니일수록 그렇지 않은 어머니보다 양육스트레스의 초기치가 더 높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속도는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성은 어머니로 하여금 양육에 어려움을 겪게 한다는 선행연구 결과(권미경, 2011)를 지지한다. 이 조사에서 자녀의 기질은 어머니가 지각하는 특성이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자녀가 칭얼대고 떼를 쓰는 등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상황을 어떻게 수용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 장기적인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어머니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가 나타날 수 있

는 양육 상황을 이해하고 적절한 대처 전략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이용할 수 있는 교육서비스가 필요하다. 한편 자녀가 더욱 활발하고 움직임이 많다고 지각할수록 양육스트레스의 초기치가 더 낮았으나, 이후의 변화율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높은 활동량보다는 자녀의 부정적인 정서 표현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더욱 장기적·누적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녀의 활동성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권미경, 2011; 남혜순, 2003)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1차 연도 한국아동패널조사에서 사용된 기질 척도를 살펴보면 정서성 문항들은 부정적 정서 표현의 빈도와 강도(예: 잘 운다, 쉽게 기분이 나빠진다, 화가 났을 때 격하게 반응한다 등)를 의미하고 있다. 활동성 문항들은 지나치게 움직임이 활발하여 어머니의 주의를 더욱 요구하는 까다로운 정도(예: 항상 끊임없이 움직인다, 매우 활동적이다 등)를 측정하는데, 만 0세 영아의 신체운동발달 특징은 뒤집고, 기고, 서고, 걷기 시작하는 단계이므로 이 시기 영아의 활동성 점수가 높은 것은 부모에게 까다로운 기질 특성이라기보다는 가시적인 발달이 정표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1차 연도에 측정된 활동성 기질은 출산 초기 양육스트레스를 오히려 감소시키는 결과가 도출되었을 수 있다.

셋째, 양육스트레스 변화 궤적은 자녀의 기질이 이후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성 기질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의 초기치는 더욱 높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속도는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함에 따라 내재화 문제도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활동성 기질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의 초기치는 더 낮고, 이에 따라 내재화 문제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 변화 궤적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타고난 기질 자체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모-자녀 관계가 상호호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Kuczynski & Parkin, 2006),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와의 일상적 상호작용에 반영됨으로써 발달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Crnic et al., 2005)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이는 영유아의 긍정적인 발달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 및 교육 지원뿐만 아니라 영유아와 매일 상호작용하는 1차적 환경인 어머니와 가족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함을 시사한다.

넷째,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다집단분석 결과,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경우 변인 간 영향력을 미치는 경로는 앞서 논의한 결과와 동일한 패턴을 보였으며, 자녀의 기질을 통제하였을 때 양육스트레스 초기치가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기

질을 통제하였을 때 두 집단의 양육스트레스 변화 궤적은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의 증가가 점차 완만하게 이루어지는 이차곡선의 형태이지만, 비취업모의 경우 취업모에 비해 양육스트레스의 초기치가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을 횡단적으로 비교한 선행연구(권미경, 2011; 손수민, 2012)의 결과를 뒷받침하며, 비취업모는 영아기 자녀가 있을 때 스트레스 정도가 가장 높다는 연구결과(박혜준 외, 2013)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출산 직후 1년 동안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가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보다 더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누적된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발달 및 적응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Crnic et al., 2005) 영아기 자녀를 둔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및 사회적 고립감과 같은 정서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돕는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현행 보육정책은 출산장려금,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등과 같은 재정적 지원과 관련된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비취업모에 비해 취업모·맞벌이 가정을 보다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육정책의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정서적 건강을 위한 질적인 측면의 지원이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확대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출산 초기 및 영아기 자녀를 둔 비취업모의 양육부담을 덜 수 있도록 보육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보육기관을 확충하고, 시간제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며, 이러한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를 통해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 등이 있다. 또한 전국 시·군·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머니들 간 육아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보다 밀착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화 양상을 종단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자녀의 기질과 이후 내재화 문제 간의 구조모형을 검증하고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변인 간 영향력의 경로를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자녀의 기질 외에 양육스트레스 변화 궤적의 개인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양육스트레스와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다양한 변인들(부부관계의 특성, 유아교육기관 이용 여부, 사회적 지원 활용 정도, 육아지원정책 수혜여부 및 만족도 등)이 양육스트레스의 변화 궤적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양육스트레스의 변화 궤적이 유아의 내재화 문제뿐만 아니라 인지, 언어, 행동 발달 등 유아

의 다양한 발달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밝혀냄으로써 양육스트레스와 같은 어머니의 정서적 건강 수준이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 차원에서 대처해야 할 문제임을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나아가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는 보육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권미경(2011). 영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영향요인: 어머니의 취업여부를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7(2), 19-41.
- 김기원·도현심·김상원·이선희(2010). 어머니의 취업여부, 취업관련 특성, 배우자의지지 및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31(5), 101-113.
- 김숙령·최항준·정경화·이윤아(2012). 영아기질과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영아의 사회·정서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6(1), 551-575.
- 김혜라·김진경(2012). 아동의 발달 특성과 정서성 및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8(3), 53-67.
- 김현희·박천만·이종렬·신효순(2009). 어머니가 지각하는 Parenting Daily Hassles가 양육스트레스 및 부적절한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3(2), 207-219.
- 남혜순(2003). 어머니가 지각하는 유아의 기질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차이. **아동교육**, 12(2), 121-135.
- 도남희·민정원·왕영희·이예진·김소아·김지민(2013). 한국아동패널 2013. 육아정책연구소.
- 문혁준(2005). 취학전 아동을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관련 변인 연구. **아동학회지**, 26(5), 139-149.
- 민현숙·문영경(2013).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과 영아의 발달 간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22(1), 43-56.
- 박혜준·한경혜·박세롬·장미나·전을정(2013). 0-8세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과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1), 11-27.
- 백영숙(2007). 어머니의 자녀양육스트레스와 양육죄책감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석원·이대균(2013).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및 영아의 정서성 기질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우울의 매개효과. **유아교육연구**, 33(5), 279-298.
- 서주현·김진경(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영유아보육학**, 73, 101-121.
- 손수민(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 비교와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1), 331-357.
- 신지연(2011). 유아의 기질 및 양육스트레스와 어머니 양육행동 간의 관계. **유아교육학논집**, 15(2), 291-312.
- 육아정책연구소(2013). 한국아동패널 2008(1차년도) 도구프로파일. 육아정책연구소.
- 육아정책연구소(2014). 1~6차년도 표본 유지율. <http://panel.kicce.re.kr>
- 이정민·이보람(2013). 양육스트레스의 변화양상, 보육료 수혜여부, 육아지원기관 및 지역 사회 양육환경 만족도가 후속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 **8주년 기념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369-387.
- 이희정(2013).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종단적 변화. **8주년 기념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251-271.
- 정미라·강수경·최은지(2014).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특성, 놀이참여도와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유아교육학논집**, 18(5), 373-401.
- 최효식·연은모·권수진·홍윤정(2013).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 양육참여, 자녀가치, 양육 지식, 양육스트레스 간의 종단적 관계분석. **육아정책연구**, 7(2), 21-45.
- 홍세희(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세희·유숙경(2004). 다변량 고차 잠재 성장모형을 이용한 내외통제성과 학업성취의 종단관계 분석. **교육평가연구**, 17(2), 131-146.
- Abidin, R. R. (1990).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the stresses of parenting.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4), 298-301.
-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4), 407-412.
- Anthony, L. G., Anthony, B. J., Glanville, D. N., Naiman, D. Q., Waanders, C., & Shaffer, S. (2005).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stress, parenting behaviour and preschoolers' social competence and behaviour problems in the classroom.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4(2), 133-154.
- Coplan, R. J., Bowker, A., & Cooper, S. M. (2003). Parenting daily hassles, child

- temperament, and social adjustment in preschool.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8, 376-395.
- Crnic, K. A., Gaze, C., & Hoffman, C. (2005). Cumulative parenting stress across the preschool period: relations to maternal parenting and child behaviour at age 5.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4(2), 117-132.
- Crnic, K. & Low, C. (2002). Everyday stresses and parenting. In M.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vol. 5. Practical Issues in Parenting 2nd Edition* (pp. 243 - 267), Lawrence Erlbaum Associates: Mahwah, NJ.
- Cummings, E., Davies, P., & Campbell, S. (2000).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and family process: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implications*. Guilford Press: New York, NY.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 1, 16-29.
- De Mol, J. & Buysse, A. (2008). The phenomenology of children's influence on parents. *Journal of Family Therapy*, 30, 163-193.
- Deater-Deckard, K. (1998). Parenting stress and child adjustment: Some old hypotheses and new questions.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5(3), 314 - 332.
- Fox, N. A. & Calkins, S. D. (1993). Pathways to agg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Interactions among temperament, attachment and regulation. K. Rubin and J. Asendorpf (Eds.), *Social withdrawal, shyness and inhibition in childhood* (pp. 81-100).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Kochanska, G. (2001). Emotional development in children with different attachment histories: the first three years. *Child Development*, 72(2), 474-490.
- Kuczynski, L. & Parkin, M. (2006). Agency and bidirectionality in socialization: interactions, transactions, and relational dialectics. In J. E. Grusec and P. D. Hastings (Eds.). *Handbook of Socialization*. New York: Guilford Press.
- Mulsow, M., Caldera, Y. M., Pursley, M., & Reifman, A. (2002). Multilevel factors influencing maternal stress during the first three yea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 944-956.
- Music, G. (2011). *Nurturing natures: Attachment and children's emotional, sociocultural, and brain development*. East Sussex: Psychology Press.
- Rothbart, M. K. (2007). Temperament, development, and personality.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6(4), 207-213.

- Rothbart, M. K. & Bates, J. E. (1998). Temperament. In W. Damon, R. Lerner, & N. Eisenberg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5th edition (pp. 105-176). Wiley: New York.
- Rothbart, M. K. & Bates, J. E. (2006). Temperament. In W. Damon, R. Lerner, & N. Eisenberg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6th edition (pp. 99-166). Wiley: New York.
- Tharner, A., Luijk, M. P. C. M., van IJzendoorn, M. H., Bakermans-Kranenburg, M. J., Jaddoe, V. W. V., Hofman, A., VerHulst, F. C., & Tiemeier, H. (2012). Infant attachment, parenting, and child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at age 3 years.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12*, 261-281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Sage: CA,
- Williford, A. P., Calkins, S. D., & Keane, S. P. (2007). Predicting changes in parenting stress across early childhood: Child and maternal factor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5*, 251-263.

·논문접수 4월 16일 / 수정본 접수 5월 28일 / 게재 승인 6월 9일

·교신저자: 노보람,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이메일 borino@snu.ac.kr

Abstract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Trajectories of Mothers' Parenting Stress, Children's Temperament and Internalizing Problems: Multiple Group Analysis according to Employment Status of Mothers

Park Saerom, No Boram, Park Hye Jun, and Yi Soon-Hyung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investigate the trajectories of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analyze longitudinal mediation effect of parenting stress in the influence of children's temperament to internalizing problems in early childhood. To do this, the first through fifth longitudinal panel data set from PSKC(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beginning at 2008 by KICCE(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was used.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quadratic increase in the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significant individual difference in each of three terms(intercept, slope, and quadratic slope) was found. Second, children's temperament(emotionality, activity)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trajectories of parenting stress. Third, the trajectory of parenting stress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fants' emotionality(1st wave) and young children's internalizing problems(5th wave), and also had a ful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fants' activity(1st wave) and young children's internalizing problems(5th wave). Fourth, the results of multiple group analysis indicated that unemployed mothers' intercepts of parenting stres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employed mothers'. It was also found that there was no difference in path weights between employed mothers and unemployed mothers.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latent growth modeling, trajectories of parenting stress, temperament, internalizing problem, multiple group analysis